

January 30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 골로새서 3:2-6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여기서 “음욕을 품고”의 ‘품다’를 원어로 보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암탉이 품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마음에 음욕을 품다 보면 상황과 유혹에 따라 간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 음욕을 제어할 장치는 무엇일까요? 유혹의 원천은 자기 자신입니다 (약 1:13-14). 하나님 탓, 상황 탓,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욕심과 정욕이 악한 유혹과 만나면,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죄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과 음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 즉 거룩하지 않은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순전함과 온전함에서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① 속마음까지 성령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까?
- ② 죄의 생각과 죄의 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